

지역 매아리

부안군, 인허가 민원부서  
친절도 향상 토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22일 행정복지국장실에서 인허가 민원부서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허가 민원부서의 친절도 향상 방안 도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안군 인허가 민원업무담당 팀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허가 민원부서내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전화응대 요령 체질화 교육 등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담당부서가 애매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배정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허가 민원부서의 친절도·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실시

이력서 ·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여성을 돕기 위해 취업 준비교육인 '새일 취업 솔루션' 1기를 운영했다.

교육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로탐색과 일자리 정보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으로 진행됐다.

새일센터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수료식을 열어 교육참가자 10명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후 이들은 직업훈련 연계와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한 수료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자신감을 키워준 새일센터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취업준비교육은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새일센터는 2기(2월22일~2월28일)와 3기(3월4일~3월8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월 2~3회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 여성문화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534-82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한반도 농업의 꽃 피우다'

## 고창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농대제 열어

고창군이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한 해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시농대제(始農大祭)'를 연다.

지난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9일(목요일) 도산리 고인돌 공원 일대에서 '한반도 농업의 꽃을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한 '2019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주변에 산재된 고인돌유적과 부장품인 반월형석도(반달모양 돌갈로 곡물수확) 등으로 미뤄 한반도에서 가장 처음 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도산리고인돌은 농경문화 정착이후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천제를 올렸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도산마을은 현재까지 지모신인 달이 가장 밝은 정월 14일(음력) 자정에 매년 천제를 올리고 있다.

'고창농생명산업 선포 시농대제 기본구상'을 연구한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오은주 실장은 "기도와 정성이 없는 결실이 없으니 감사해야 할 일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다"며 "특히 고창은 한반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양한 풍부한 식량자원의 중심지 이기에 전국 최초 '시농대제'의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4월에 열리게 될 시농대제에선 ▲개막공연 ▲대한민국 농부 권리장전 선언 ▲시농의식 ▲고창비전선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등이 참석한 '한반도 시농대제 군민 설명회'를 열고 군민의견을 수렴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의 중요성을 열 번 강조하는 것보다 기일제를 통해 농업의 신성함을 알리는 것이 바르고 빠른 일이다"며 "이번 한반도 시농대제를 통해 고창군이 명실상부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복지관이 숲체험교육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어 지난 2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 "자연환경과 교감 통해 스트레스 해소해요"

### 부안복지관, 숲체험교육평가 전국2위 쾌거... 맞춤형 교육 우수 인정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8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숲체험교육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어 지난 2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숲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녹색자금지원사업 평가는 2018

년 숲체험사업에 참여한 총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관은 지체, 청각, 발달, 정신, 시각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자연환경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교육을 위해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부안군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

회 부안지회 등과의 협약을 맺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안복지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숲체험교육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아동,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숲체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전국 달림이들에게 환상의 코스로 '각광'

###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성료... 4천여명 참가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 동학마라톤대회가 24일 정읍시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정읍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한 대회에는 풀·하프코스, 10km, 5km에 선수 4천여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 중 정읍 참가자가 1,052명(26%), 타 지역 참가자가 2,963명(74%)으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반영했다.

또 정읍전반과 내장산으로 이어진 풀코스는 전국 달림이들에게 환상의 코스로 각광을 받았다.

더불어 대구에서 참가한 최연소 마라토너 김성준(5)군이 하프 코스에 도전해 많은 이들의 합찬 응원박수를 받았다. 특히 'BS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서 김 군을 취재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회 중에는 구간별로 시립 농악단, 퓨전민요, 색소폰 등 5개의 응원단이 배치돼 선수들의 힘을 더욱 북돋웠다.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관내 기관 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시 관계자는 "대회 시간 동안 정읍 주요 도로변이 일부 통제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한 덕분에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에는 모두 73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1470m 구간에서 제방을 쌓고 호안(護岸)을 보강한다. 또 배수암거(排水暗渠)와 배수통관 각 6개소와 중배수관 8개소, 용배수로 1984m, 취입로 1개소 등을 재설치하고 일원 14,096㎡를 포함한다.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전복도가 시행하고 정읍시는 보사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184필

지 10만5천831㎡로,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다.

시는 오는 3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면 4월 중 개별적으로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김인태 부시장은 "토지 소유자 등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상 대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수리·수문 시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농촌관광 '팜팜시골버스' 4월부터 본격운영

고창군의 농촌체험 특화 프로그램인 팜팜시골버스가 여행사 선정을 마무리 하고, 4월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단장 김수남)과 (주)해밀여행사(대표 오영진)가 2019 고창 팜팜시골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국내 가장여행 전문회사인 (주)해밀여행사 오영진 대표는 "고창 팜팜시골버스가 고창의 대표 농촌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김수남 단

장은 "고창의 관광지과 지역의 팜팜농가들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 팜팜시골버스는 오는 4월 6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토요일)익산역, 일요일 광주출발) 고창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 고창 관내 관광코스를 운행하게 된다.

(주)해밀여행사에서는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토요일 운행의 상담·예약과 고객 관리 등을 진행 하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